

화순군, 세랑지에 '힐링 쉼터' 조성한다

전남도 '관광지·지역상권 활력 사업' 공모 선정 총사업비 2억 투입 포토존·모래놀이장 등 예정

화순군이 2억 원을 들여 세랑지 일대 경관과 쉼터를 확충한다. 최근 화순군 '세랑지 힐링 쉼터 조성사업'이 전남도 주관 '2021 관광지 및 지역상권 활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4000만 원이 투입된다. 군은 세랑지 생태공원에 포토존, 쉼터, 모래놀이장 등 오감만족 힐링

놀이 공간, 지역 주민 소득창출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편의 시설과 관광 기반시설 확충, 자연친화적 쉼터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세랑지는 미국 CNN이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으로 선정할 만큼 풍광이 아름다워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세랑지 일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 연과 공존하는 특화공간을 조성하도록 인공 구조물은 최소화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특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무농약' 키운 친환경 장성 단호박 첫 수확

2.6ha 43톤 규모... 소득률 높아 '신소득작물'로 육성

맑은 공기와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난 친환경 장성 단호박이 첫 수확을 맞았다.

단호박은 같은 밭작물인 고구마에 비해 소득률이 3배 가까이 높다. 이점에 주목한 장성군은 안정적인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올 초부터 친환경 단호박 재배에 뛰어들었다.

군은 단호박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모종과 친환경 농자재,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 등을 지원했다. 또 시기별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재배 과정 중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점들을 신속히 해결했다.

이러한 군의 지원에 힘입은 농업인들은 첫해부터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장성군은 수확기를 맞아 2.6헥타르(ha) 규모 농지에서 43톤(t) 분량의 고품질 친환경 단호박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에이(A), 씨(C) 등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또 플라센 생성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실증재배 및 생육단계별 현장기술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장성 단호박 재배 규모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신(新)소득작물 연구·도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확된 장성 단호박은 군급식 로컬푸드지원센터의 전처리 과정(식재료를 요리·가공하기 쉬운 상태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전량 상무대 군 급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나주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교육 수료식

29명 교육생 전원 수료...지나해 수료생 중심 '도시농업연구회' 결성

나주시가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앞장설 도시농업활동가 29명을 양성했다.

나주시는 지난 7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3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3기 과정은 지난 3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15회(90시간)차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도시농업의 이해·중요성', '관련 법', '친환경 재배기술 및 병해충 관리', '도시텃밭·정원 디자인 설계', '학교텃밭 기획·프로그램개발', '실내벽면녹화 공간 조성', '옥상텃밭 정원 현장실습', '원예치료 사례' 등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교육생들은 80%이상 교육과정 이수와 시험평가를 통과하며 전원 수료

라는 뜻깊은 보람을 함께 나눴다. 도시농업 민간 전문가로 첫 발을 내딛은 수료생들은 학교 텃밭 감사 및 관리 인력, 도시농업 전문가 등 도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도우미로 나서게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도시농업연구회'를 통해 지역 공동체 텃밭관리 및 친환경 먹거리 생산, 기부 활동을 펼치며 공익적 가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 기회도 주어진다. 농업기술센터는 자격증 취득 시 학교텃밭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군, 중앙로 전선 지중화사업 주민설명회

시외버스터미널 ~ 만성교 구간 1.4km... 다음달 착공 예정

담양군은 최근 담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주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읍 전선 지중화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총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지중화사업은 22년까지 담양시외버스터미널-만성교 1.4km 구간 내 한전주·통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작업구간 별 상인회 및 개별 상가 홍보와 비산먼지 감소를 위한 살수차 사용 등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중화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군은 올해 8월 공사를 시작해 2022년 6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지중화 사업이 추진 중인 담양읍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담양읍 시가지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다음달 2일까지 납부 당부

곡성군이 2021년 재산세 총 13,536건에 15억 원을 부과하고 7월 9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사실상 소유자가 해당된다. 사실상 소유자란 일 반적으로 등기나 대장상 소유자를 말하며, 등기나 대장이 없는 주택 및 건축물의 경우 실사용자를 의미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에는 일부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먼저 주택분 재산세 연납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50%씩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한해 과세표준 구간별 일반세율에서 0.05%를 감면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곡성=양혜영기자

구례군, 감 정지전정 전문농업인

양성과정 교육 30명 선착순 모집

오는 30일까지...이론·현장실습교육 병행 전문농업인 육성

구례군은 지역특화작목인 감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정지전정 전문농업인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생 모집은 30일까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은 다음달 8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감 정지전정 개념, 수형별·품종별 전정 이론교육과 겨울전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정 인력 부족 현상 해소, 농한기 일자리 창출, 과실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감 재배시기에 맞춘 겨울전정 현장 실습은 7회에 걸쳐 진행되며 단순한 기술교육을 넘어 농업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 할 수준의 내용으로 교육생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신청은 구례군청 및 구례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지된 '감 정지전정 전문농업인 양성과정' 모집요강의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30일까지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과수 정지전정은 고품질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에 직결되는 재배기술이다"며 "이번 교육과 더불어 우리군 주요 작목에 대한 전문기술교육과 경쟁력 있는 품목 도입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군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문의는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780-2077, 207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허균 <도문대작>

